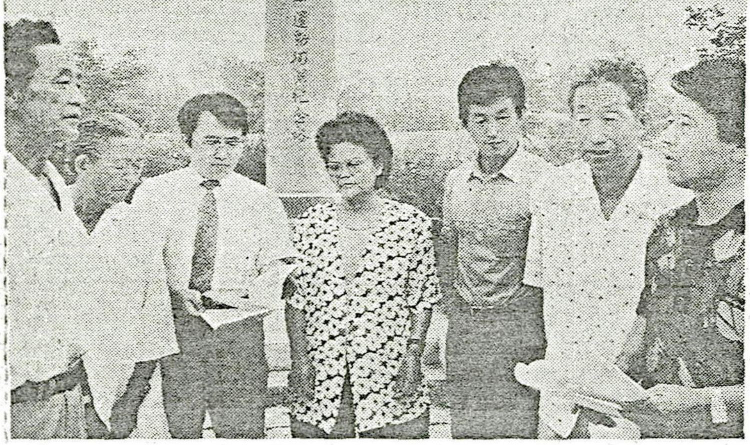
1

713

1991. 8. 2

희생자유족 7명 日법원에 提訴

1919년 4월15일 23명의 양민들이 일본군에의해 교회에 갇힌채 무참하게 불에 타 숨진 경기도화성「제암리 학살사건」의 희생자 후손들이 72년만에 선조들의 한을 푸는 첫걸음을 내디뎠다.



◇安亨憲씨(왼쪽에서 세번째)를 비롯한「제암리사건」유가족 7명이 경기도 화성군「3·1운동 순국기념비」앞에서 지난 7월일본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장을 함께 검토하고 있다. <林賢燦기자>

「제암리학살」日에 배상요구

先祖 억울한 죽음 72년만에 恨풀이

제암리교회에 갇혀 사망한 安珍淳씨(당시 21세)의 손자 安亨憲씨(47·서울 강남구압구정동)등 제암리사건 유가족 7명은 지난달 15일 일본정부를 상대로 사죄와 배상을 요구하는소송을 동경지방법원에 냈다.

압구정동에서 대입학원을 경영하는 安씨는 소장을 제출하기 위해 일본을 다녀온 뒤 지난 13일 제암리에 살고 있는 할머니 田同禮씨(95)를 찾았다. 제암리사건의 목격자중 유일한 생존자이기도 한 田할머니는 손자의 이야기를 듣고『이제야 먼저 간 남편을 뵐 면목이 선다』며 눈물을 흘렸다.

安씨가 배상요구를 결심한 것은 작년 7월. 그전까지 安씨는 할머니와 아버지로부터『할아버지가일본군에 의해 억울한 죽음을 당했다』는 얘기를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왔지만 별 관심없이 지나쳤었다. 오히려 독립운동 집안이라는 이유로 일본인지주들이 소작조차 못하게하면서「밥상에서 김치죽이 떨어질 날이 없을 만큼 가난한 생활」이 3대째 내려오는 것을 보고『독립운동이라면 지긋지긋하다』고까지 생각했던 安씨였다.

그러나 그는 재일동포와 일본인으로 구성된「일본의 한국인에 대한 공식진사(陳謝)배상요구 재판추진회 (회장 宋斗會·76)」가 제암리사건의 증인인 田할머니를 찾아와『일본이 잘못을 인정하고 한국인에게 사과토록 해야한다』고 하는 말을 듣고 마음을 바꾸었다. 시모노세키와 오사카의 변호사、학원강사、기자등 일본사람들까지 나서서『변호인、재판비용등 소송에 필요한 것은 적극 돕겠다』는데 후손으로 가만히 앉아있을수 없었다.

安씨는 제암리 희생자유족들을 찾아 나섰다. 1년동안 4차례에 걸쳐 일본「추진회」측과 의견을 나누면서 증거자료를 준비한뒤 피해배상청구소송을 내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지난달15일 동경지방법원에 소장을 접수한 安씨는 뜻있는 극히 일부 사람을 빼곤 대부분의 일본 젊은이들이 과거의 잘못에 대해 너무나 모르고 있다는 사실에 깜짝 놀랐다.

『당시는 한국민이 일왕의 백성으로 지내는게 더 좋았지 않았는가』소장을 낸 뒤가진 기자회견에서 일본의 젊은 기자들은 3·1운동이 왜 일어났는지 이해할수 없다는 태도였다.『제암리사건」을 모르는것은물론 한술더떠『한국에서 향일독립운동이 있었느냐』고 묻는 이들도 있었다.

때마침 어느 해외동포가 日帝만행을 주제로 제작한 1시간20분짜리 기록영화「아리랑」을 이날오후 요코하마 농민회관에서 상영하면서 安씨를 특별연사로 초청했다. 이자리에서 安씨는 5백여명의 일본인 관객들에게 3·1만세운동에 참가했다는 이유로 마을주민들을 교회에 모아 놓고 불태워 숨지게한「제암리 학살 사건」을 설명했다.

관객들은『50여가구가 살았던 동네가 집 1채를 남기고는 모두 불에 탔으며 타버린 재가 50여리나 날아갔다』는 설명을 듣고는 차마 믿어지지 않는다는 표정이였다. 강연이 끝난 뒤 할아버지가 일제때 서울에서 순사로 있었다는 한 청년은『우리 선조들이 그렇게 끔찍한 일을 저질렀는지 몰랐다』며 용서를 빌고 돌아갔다.

『돈 몇푼 받아내자는 뜻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기위해 구체적인 배상액을 적지 않았습니다』安씨는『일본정부로부터 마음에서 우러난 사과를 받아낼 수 있도록 재판에 온 힘을 쏟겠다』며『재판과는 별도로 일본국민 모두에게 할아버지가 겪은 고통을 알리기 위해 내년부터는 1년에한차례씩 일본 구석구석을 돌며 제암리사건의 진상을 알리는 강연회를 갖겠다』고 말했다. <孫暒美기자>